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 투어' 9월 광주 온다

'다양한 캐릭터의 고양이들이 펼쳐는 환상의 무대'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캣츠' 오리지널 월드 투어 팀이 광주를 찾는다.

오는 31일 대구(7월1일까지 오페라극장)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7월6일~9월2일 국립극장)을 거쳐 광주에 상륙하는 '캣츠'는 오는 9월7~16일(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8시, 일요일 오후2시·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광주 팬들을 만난다.

이런 광주 공연은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오리지널 공연팀의 장기 공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번 광주공연의 1차 티켓판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우선 9월12일 공연분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세계인을 감동시키다
지난 1981년 뮤지컬의 본고장인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캣츠'는 환상적인 무대와 실제 고양이를 방불케하는 정교한 분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전 세계 뮤지컬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이다.

웨스트엔드에서 21년간 8천950회, 브로드웨이에서 1982년부터 18년간 7천485회가 공연된 '캣츠'는 전세계 300여 개 도시에서 14개국의 언어로 상연돼

오늘부터 1차분 예매 시작

6천50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특히 토니상(연출상·작곡상 등 7개 부문), 로렌스 올리비에상, 모리에 어워드 등 뮤지컬 관련 상을 모두 휩쓸어 작품성과 흥행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뮤지컬이다.

T.S 엘리엇의 우화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캣츠'는 다양한 캐릭터의 고양이를 인생에 비유한 작품. '캣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음악. '오페라의 유령'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을 작곡한 '뮤지컬계의 미다스의 손'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20여곡에 이르는 뮤지컬 넘버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음악, 무대, 의상 환상의 호출
영국 공연 종연 후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투어팀인 이번 내한 공연팀은 대만, 중국, 이탈리아 등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2008년까지 공연을 이끌어 간다.

'캣츠'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와 관객이 호흡하는 것. 장 큰 특징은 직접적으로 고양이로 분장한 배우들

위를 돌아다니고, 비밀통로를 마련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출몰, 관객들을 놀래킨다.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탈바꿈해 고양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돌출형 무대 역시 관객들과의 친밀감을 고려한 장치다.

이번 공연에서 '캣츠'의 대명사인 '메모리(memory)'를 부를 그리자벨라 역은 '에비타' 등에서 주인공역을 맡았던 프란체스카 아레나가 캐스팅됐으며 말쑥쟁이 고양이 몽고제리 역은 72개 도시에서 '캣츠'를 공연해온 마크햄 갠이 맡았다.

▲광주공연 문화 다시 쓴다.
뮤지컬이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과 대구·대전 등 대도시에서는 해외 오리지널팀의 공연이나 국내 유명 뮤지컬팀의 장기 공연이 자주 열렸다.

하지만 광주는 지난 2003년 광주월드컵 공연장에서 열렸던 '캣츠'의 빅타임어터(천막극장) 공연이 거의 유일하다. 이번 '캣츠'는 10일간, 13회 진행돼 광주에서 가장 오래 공연되는 단일작품으로 기록된다.

티켓 가격은 13만원(VIP석), 11만원(R석), 7만원(S석), 5만원(A석), 주말 공연은 1만원씩 추가된다.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 세계 뮤지컬 팬들을 감동시킨 '캣츠' 오리지널 투어팀이 9월 광주에 상륙한다. '메모리' 등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로 유명한 '캣츠'는 지금까지 6천50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토니상' 등 각종 뮤지컬 관련상을 수상한 대작이다.

극단 '허방' 가족극 '내엄마' 23~27일 공동예술극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극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허방'은 잔혹 단막극 '내 엄마'를 선보인다. 23~27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 4시·7시) 광주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

엄마와 자식간의 사랑 등 가족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세 편의 단막극이 어우러진 유니버스 작품이다.

첫 작품은 옛날 어느나라의 왕이 장애아들을 모조리 처형한다고 선포하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살

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수십년간 살종된 아들을 찾아 헤메는 어머니, 교통사고로 죽은 자식을 잊지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여성과 그를 지켜보는 남편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김영학씨가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으며 이경진·문진희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18-642-92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수 출신 요절 화가 손상기 추모전

장애·가난 극복한 뜨거운 예술혼

31일까지 여수 진남문예회관
작품 34점·육필 원고 등 선배



'공작도시-아현동에서'

"굶으면서 그려온 그림들이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영광이 아니다. 인고다. 허나 그 인고를 즐거움이라 느끼는 것. 이것에 매료돼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여수 출신 서양화가 손상기(1949~1988)씨는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척추만곡증)와 처절한 가난을 치열한 예술혼으로 극복한 화가다. 서울 아현동 월셋방에서 살았던 그는 부뚜막 앞에 캔버스를 펼쳐놓고 유서를 쓰듯이 작품을 제작했다.

손씨는 80년대 도시 빈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을 작품으로 형상화, 화단에서 주목받았지만 고향에서는 작품세계를 알릴 기회를 갖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작고 19주기를 맞아 손상기씨의 작품세계와 삶을 조명하는 '예술혼을 불사른 요절 화가 손상기'전이 22~31일까지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열린다.

화가 손상기기념사업회(상임대

표 김홍용·이하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회고전에는 유화, 판화, 드로잉 등 작품 34점과 육필원고 등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원광대 재학시절 초기작과 서울 아현동 시절을 대표하는 연작 '공작도시', '취너', '자라지 않는 나무', '시들지 않는 꽃' 등 민중들의 삶을 스के치한 작품들이 출품된다. 고향 여수의 풍경을 담은 '고향해변', '항구도시-건어장' 등도 선보인다.

손씨는 원광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1년 첫 개인전을 가진 이래 중앙미술, 구상전 등에서 수상했고, '문제작가전', '해방 40년 민족사전', '30대 기수전' 등에 참가했다.

지난 2월 출범한 기념사업회는 오는 9월 손상기씨의 글과 평론을 묶은 문집 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손 화백의 작고 20주기를 맞아 서울 전시를 추진 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천원의 낭만' 즐기세요

23일 '김동규와 함께 콩쿠르 입상자 초청 공연'



바리톤 김동규 피아노 임호열 첼로 장우리

오는 8월 개막하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천원의 낭만' 두번째 행사가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동규와 함께 하는 콩쿠르 입상자 초청 공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제31회 부세토 베르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리톤 김동규씨를 비롯해 각종 콩쿠르에서 수상한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번 무대에서는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최근 제21회 에피날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호열씨와 역시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로스트로포

비치 국제 콩쿠르에서 세미파이널에 진출한 첼리스트 장우리씨 등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연주 곡목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번호 90-4번'과 쇼스타코비치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40'이다.

그밖에 오르간 연주자 최주용(스위스 상 마리우스 오르간 콩쿠르 2위)씨와 소프라노 엄진희(스페인 비나스 국제 콩쿠르 최연소 신인상)씨와 색소폰 연주자 데이비트 밀턴이 출연한다. 티켓가격 1천원, 문의 062-521-32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

광주 서구문화원, 28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김종이)이 주최하는 '제4회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가 28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낭송할 시 전문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40만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시상송가 자경증 등이 수여된다. 시의 선택, 낭송기교, 태도, 청중반응 등을 심사하게 된다. 문의 062-681-4174.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movies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총창로 5가 ☎ 228-2700

컬럼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m 제일시네마